

이탈리아 서부의 토스카나 평원에 자리잡은 역사적인 고도인 피렌체는 '꽃과 예술의 도시'라고 불린다. 아르노강이 도시의 중심부를 유유히 흐르고 붉은 기와지붕을 엮은 건물들이 유난히 많은 이 도시를 방문해보면 어디선가 옛날의 영화를 속삭이는 것 같다.

꽃의 도시, 예술의 도시, 르네상스의 고향인 피렌체는 다양함을 지니고 있어 시민들은 정신적인 편안함을 느낀다. 또한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므로 일거리가 많고 관광수입 또한 지대하여 시민들은 여유있는 삶을 누린다. 도시 환경 역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양호하여 피렌체는 이탈리아에서 살기 좋은 도

시로 으레 꼽힌다.

피렌체는 찬란한 문화유적이 도처에 많으므로 문화재 보호에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가 한몸이 되어 노력한다. 시내 중심부에는 자가용 진입이 통제되고 버스와 공무용 차량 진입만 허락된다. 대기오염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막고 한해 평균 7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시내 중심부를 달리는 버스도 가솔린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미니버스로 최대 25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시내 도로가 폭이 좁은 옛 도로라서 교통문제가 심각하지만, 문화재 보존을 위해 새로운 도로를 낼 수 없는 애로

이탈리아' 피렌체'

글·사진: 허용선(건강 칼럼리스트)

▼ 피렌체는 메디슨가의 후원으로 인해 풍요롭게 된 도시이다. 뛰어난 문인과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피렌체는 과거만을 지향하는 도시는 아니다. 과거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일 못지 않게 현재의 피렌체를 가꾸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피렌체의 모습은 명품(名品) 거리인 '비아 데 토르나부오니' 에서 잘 드러난다. 세계 고급 패션시장을 선도하는 '구찌' 와 '페라가모' 본점이 수백년된 르네상스 건물에 들어서 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근원지였던 만큼 시가지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다. 유서깊은 건물 하나 하나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세계 3대 성당

중 하나인 두오모(Duomo,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를 비롯해 산 조바니 세례당, 산 로렌체 교회, 산타 크레체 교회, 우피치 미술관, 고고학 박물관, 산 마르코 미술관 등과 같은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널려 있다.

피렌체의 상징적 건축물인 두오모 성당은 높이가 106m나 된다. 세계에서 3번 째로 큰 성당으로 13세기 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몇 차례 개축을 한 후 1471년 완공되어 오늘날과 같은 장려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사실 피렌체를 방문하면서 두오모 성당을 보지 않았다면 헛발질을 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으레 찾는 곳이다. 463개의 계단을 밟고 두오모 성당 옥

▼ 3개의 청동문 중 등쪽에 있는 문을 「천국의 문」이라고 하여 특히 유명한 산 조바니 세례당 모습

▼ 피렌체의 시가지. 구찌 등 유명한 상품의 본점도 시내에 자리하고 있다.



▶ 피렌체 여성들은 다른 이탈리아 여성보다 훨씬 세련된 면모를 지닌다.

상에 올라가 내려다 보면 피렌체 시내는 온통 붉은 빛이다. 대부분의 지붕이 한결같이 붉은 기와로 단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렌체 지역의 흙으로 기와를 구우면 붉은 색이 나오는데, 지붕은 이 기와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도시 전체가 위에서 내려다 보면 붉은 빛을 띄는 것이다. 피렌체는 문화재 보호지역이므로 개인이 시내에서 건물을 짓거나 증축·개축하는 것도 엄격한 문화재보호법의 감독을 받는다.

피렌체에 있는 여러 미술관들 중에도 르네상스의 명작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이 '우피치 미술관' 이

1321)가 태어난 곳도 피렌체이고, 보카치오(1313~1375)가 '데카메론'을 쓰고 그 작품 배경이 된 곳도 피렌체이다. 또한 정치사상가인 마키아벨리, 다방면으로 탁월한 재주꾼이었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 화가인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등은 피렌체를 배경으로 성장한 천재들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피렌체에서 태어난 위대한 예술가이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을 대표하는 미술가일 뿐만 아니라, 과학자 겸 기술자, 사상가이기도 했다. 다 빈치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파리 루브르를 찾는 수백만 명의 관람객들이 놓치지 않

▼ 피렌체의 시가지.

▼ 거리의 초상화가들, 솜씨가 뛰어난 화가도 드물게 있다.

▼ 베키오 다리. 아르노 강 위에 세워진 유서 깊은 다리다.



다.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헤매다가 발견한 우피치 미술관의 외관은 초라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내부의 소장품은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과 함께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알찬 미술관 중의 하나이다. 초창기에는 동쪽 건물의 2층만이 미술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쓰였으나, 현재는 건물 전체에 르네상스 시대를 비롯한 이탈리아 거장들의 작품이 들어서 있다.

르네상스가 태동하고 꽃을 피운 피렌체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신곡'을 쓴 단테(1265~

고 꼭 들르는 '모나리자' 일 것이다.

로마에서 특급열차로 피렌체로 가노라면 가슴벅찬 그 무엇이 느껴진다.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인 피렌체(Firenze, 영어로는 플로렌스)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라파엘로, 단테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활동했던 곳이고 그들의 작품이 고스란히 보존된 곳이라 신비스러움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표정 역시 밝고 삶의 여유로움도 발견 할 수 있어 이탈리아에서 살기 좋은 도시임을 잘 느끼게 한다. ☺